

韓·日·琉 격조사 비교연구 - 主格·目的格 조사를 중심으로 -

이 갑
(강원대학교)

◆ 국문초록

韓國語·日本語·琉球語 세 언어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본 논문은 韓國語·日本語·琉球語 세 언어의 문법 범주인 격조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격조사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이미 상당한 형태상의 차이가 남을 밝혔다. 형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언어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기능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다른 조사로 나타나는 경우 세 언어는 각각 차이점을 보였다. 한 국어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다 보조사로 쓰일 수 있으며, 일본어의 경우는 주격조사가 접속조사로 사용될 수 있고 목적격조사는 간투조사(間投助詞)로 사용될 수 있다. 유구어의 주격조사는 일본어의 주격조사와 유사한 용법으로 사용된다.

주제어 :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유구어, 공통 조어, 형태, 기능

1. 서론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 세 언어가 모두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학설¹⁾이 있다. 하지만 다른 알타이 제어와 비교하면 세 언어는 다 알타이 제어와의 공동 기초 어휘 부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알타이 제어와 어휘면에서 공통점이 적은 데다가 문법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는 문법체계의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 이기문(1998)에서 문법 체계는 차용이 거의 없고 보수적이어서 고유 요소의 중심부요 전통의 핵심부라고 설명했다²⁾.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 세 언어의 문법 체계에 대해 세밀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면 세 언어가 같은 계통, 같은 어족에 속하느냐는 문제에 유력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 세 언어 간의 교육, 학습, 번역 그리고 상대방 언어로 작성한 자료의 정리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는 세 언어의 문법 범주인 격조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격조사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여 세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는 세 언어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Alexander Vovin은 “Northeastern and Central Asia: ‘Altaic’ linguistic history”에서 한국어, 일본어, 유구어는 모두 다 알타이 어족의 언어로 설명했다. Alexander Vovin, “Northeastern and Central Asia: ‘Altaic’ linguistic history,” *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 ed. by Peter Bellwood, Hoboken: Wiley Blackwell, 2014, pp.201-202.

Lars Johanson의 “Altaic Languages”에서 “The most controversial point in recent discussions has been whether Korean and Japanese (with the closely related Ryukyuan language) should be regarded as members of an Altaic family.”(최근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한국어와 일본어(밀접하게 관련된 유구어도 포함)를 알타이 어족의 언어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문구로 한국어·일본어·유구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하느냐는 학자들의 논란을 언급했다. Lars Johanson, “Altaic Languages,” *Concise Encyclopedia of Languages of the World*, ed. by Keith Brown and Sarah Ogilvie, London: Elsevier Science, 2009, p.31.

2) 이기문, 『국어사개설(新訂版)』, 태학사, 1998, 29쪽.

II.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 세 언어의 표기문자에 대해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한국어의 격조사를 분석할 때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어의 경우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섞어 사용한다. 하지만 유구어(琉球語)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필요가 있다. 우선 유구어는 옛날 유구왕국(琉球王國)에서 사용하는 국어이고 현재의 오키나와(沖繩, 유구어: ~うちなー)와 아마미(奄美, 유구어: ~うーしま) 등지를 포함하는 琉球群島에서 사용하는 오래된 언어이다. 한국어의 과거의 경우와 비슷해서 옛날 유구어는 자기의 문자가 없는 언어이다. 유구왕국은 1879년에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유구는 한 나라로 광복을 못하고 1972년에 유구제도는 다시 일본의 통치를 받으니까 유구어는 장기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대 유구어는 규범적인 문자 체계를 여전히 창제하지 않았다. 그래도 유구어는 독립 언어로서 일본의 일부분 학자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현존하는 最古의 유구어 연구 자료는 한국 朝鮮朝의 宣慰使 成希顔의 「語音翻譯」이다. 이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의 간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1512년(중종 7)의 책에 부록으로 실린 「琉球國」에 수록되어 있다. 「語音翻譯」에서 중국어의 문장을 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유구어의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유구어를 기술한데 한국어, 중국어, 특히 유구어의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도 若干 유구어자료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은 「琉球館譯語」이다. 「琉球館譯語」는 명나라의 官方의 「華夷譯語」에 속하는데 「朝鮮館譯語」와 「日本館譯語」와 같이 동등한 지위의 중국어와 다른 언어의 대역 어휘집으로서 유구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처럼 독립 언어로 인정받았다. 근대에 들어 처음 과학적인 언어학 방법론에 따라 전면적으로 유구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언어학자인 Basil Hall Chamberlain이다. Chamberlain의 名作인 *Essay in aid of a grammar and dictionary of the Luchuan language* (1985)에서 유구어는 독립 언어로서 일본어와 같은 조어가 존재하는 姉妹語라고 생각한다. “琉球學之父”라는 琉球人 伊波普猷는 『琉球語便覽』, 『琉球語大辭典(草稿)』 등 저서가 있다. 金城朝永(1944)에서 “琉球語が, 日本語と同じ系統に属する言語であるこ

とについて疑ひを抱く学者は、少くとも、現在の国語学界にはゐない。”³⁾ 라는 말로 유구어는 일본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이라고 설명하고 유구어의 언어 지위를 인정했다. 服部四郎(1981)에서 유구어는 朝鮮語와 일본어와 같이 한가지의 언어로 언어의 특성을 概說했다. 外間守善(2000)에서 “本土方言と琉球方言との差は、フランス語とイタリア語ぐらいに開いているといわれており、少なくとも英語とドイツ語との差以上に開いているものであることは広く知られていることであるが、それらの諸言語がそれぞれ「一語」と呼ばれ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琉球語と呼んでもいっこう差し支えないわけである。”⁴⁾라고 유구어와 일본어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혹은 영어와 독일어처럼 言語間の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 외에 유구어의 연구자인 村山七郎(1981), 船津好明(2010), 石崎博志(2015) 등 많은 일본 학자들이 유구어의 언어 지위를 지지한다. 본고는 유구어왕국 시대의 지식인들이 일본어의 문자인 히라가나와 중국어의 한자를 섞어서 유구어를 기술하는 방식⁵⁾을 참조하고 요즘의 유구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결합하여 히라가나로만 현대 유구어를 표기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와 같이 유구어에는 수많은 방언이 존재하는데 한국어의 서울말과 일본어의 동경(東京)말처럼 본고는 주로 유구어의 표준어인 수리(首里)말을 다루겠다.⁶⁾ <표 1>은 본고가 제출한 현대 유구어 문자 표기 체계이다.

〈표 1〉 본고에서 현대 유구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

あ[aʔ]	い[i]/ji ⁸⁾	う[u ⁹⁾ /wu ¹⁰⁾	え[e]/je ¹¹⁾	お[o]/wo ¹²⁾
ゎ[ʔa]	ゐ[ʔi]	ゝ[ʔu]	ゑ[ʔe]	ゝ[ʔo]
か[ka]	き[ki]	く[ku]	け[ke]	こ[ko]
きゃ[kja]		きゅ[kju]		きょ[kjo]
くあ[kwa]	くい[kwi]		くえ[kwe]	
が[ga]	ぎ[gi]	ぐ[gu]	げ[ge]	ご[go]

3) 金城朝永, 『那覇方言概説』, 三省堂, 1944, 3쪽.

4) 外間守善, 『沖繩の言葉と歴史』, 中公文庫, 2000, 322-323쪽.

5) 중세 유구어의 가장 중요한 문헌인 『おもろさうし』에서 이런 방식으로 유구어를 표기했다.

6) 유구어 표준어에 대해서 『沖繩語辞典』, 『那覇方言概説』 등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國立國語研究所, 『沖繩語辞典』, 財務省印刷局, 2001, 1-7쪽, 18-26쪽; 金城朝永, 『那覇方言概説』, 三省堂, 1944, 1-20쪽.

ぎゃ[gi̯a]		ぎゅ[gi̯u]		ぎょ[gi̯o]
ぐぁ[gi̯wa]	ぐい[gi̯wi]		ぐえ[gi̯we]	
さ[sa]	すい[si]	す[su]	せ[se]	ぞ[so]
13) ざ[dza]	ずい[dzi]	ず[dzu]	ぜ[dze]	ぞ[dzo]
しゃ[ʃa]	し[ʃi]	しゅ[ʃu]	しえ[ʃe]	しょ[ʃo]
14) じゃ[dʒa]	じ[dʒi]	じゅ[dʒu]	じえ[dʒe]	じょ[dʒo]
た[ta]	てい[ti]	とぅ[tu]	て[te]	と[to]
だ[da]	दै[di]	どぅ[du]	दै[de]	ど[do]
つぁ[tsa]	つい[tsi]	つ[tsu]	つえ[tse]	つぉ[tso]
づぁ[dza]	づい[dzi]	づ[dzu]	づえ[dze]	づぉ[dzo]
ちゃ[tʃa]	ち[tʃi]	ちゅ[tʃu]	ちえ[tʃe]	ちょ[tʃo]
ぢゃ[dʒa]	ぢ[dʒi]	ぢゅ[dʒu]	ぢえ[dʒe]	ぢょ[dʒo]
な[na]	に[ni]	ぬ[nu]	ね[ne]	の[no]
にゃ[nja]		にゅ[nju]		にょ[njo]
は[ha]	ひ[hi]	ふ[hu]	へ[he]	ほ[ho]
ひゃ[ɸa]		ひゅ[ɸu]		ひょ[ɸo]
ふぁ[ɸa]	ふい[ɸi]		ふえ[ɸe]	
ば[ba]	び[bi]	ぶ[bu]	べ[be]	ぼ[bo]
びゃ[bja]		びゅ[bju]		びょ[bjo]
ぱ[pa]	ぴ[pi]	ぷ[pu]	ぺ[pe]	ぽ[po]
びゃ[pja]		びゅ[pju]		びょ[pjo]
ま[ma]	み[mi]	む[mu]	め[me]	も[mo]
みゃ[mja]		みゅ[mju]		みょ[mjo]
ゃ[ja]		ゅ[ju]		ょ[jo]
~ゃ[ʔja]		~ゅ[ʔju]		~ょ[ʔjo]
ら[ra]	り[ri]	る[ru]	れ[re]	ろ[ro]
わ[wa]	ゐ[wi]		ゑ[we]	
~わ[ʔwa]	~ゐ[ʔwi]		~ゑ[ʔwe]	
ん[m]/[n]/[ŋ]				
~ん[ʔm]/[ʔn]/[ʔŋ]				
っ/Q/축음				
~:/장음				

- 7) 어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 8) 어두에 나타날 때 주로 [ji]로 발음한다.
- 9) 일본어 표준어의 발음과 달리 유구어 표준어의 [u]는 원순 모음이다.
- 10) 어두에 나타날 때 주로 [wu]로 발음한다.
- 11) 어두에 나타날 때 주로 [je]로 발음한다.
- 12) 어두에 나타날 때 주로 [wo]로 발음한다.
- 13) ざ[dza], ずい[dzi], ず[dzu], ぜ[dze], ぞ[dzo]와 づぁ[dza], づい[dzi], づ[dzu], づえ[dze], づぉ[dzo]가 발음이 똑같은데 주로 ざ[dza], ずい[dzi], ず[dzu], ぜ[dze], ぞ[dzo]를 사용한다.
- 14) じゃ[dʒa], じ[dʒi], じゅ[dʒu], じえ[dʒe], じょ[dʒo]와 ぢゃ[dʒa], ぢ[dʒi], ぢゅ

Ⅲ.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의 주격조사

알타이 제어에 속한 만주어, 몽골어, 위구르어, 터키어 등과 달리, 한국어, 일본어, 유구어 세 언어는 모두 주격조사가 있다.

- (1) ㄱ. 한국어: 다로가 온다.
 ㄴ. 일본어: 太郎が来る.
 ㄷ. 유구어: たる一が ちゅーん.

(1ㄱ)에 있는 ‘가’는 ‘다로(인명)’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어의 주격조사이고, (1ㄴ)에 있는 ‘が’는 ‘太郎’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일본어의 주격조사이며, (1ㄷ)에서 밑줄을 끈 ‘が’는 앞의 ‘たる一’가 주어임을 표현하는 유구어의 주격조사이다.

한국어의 주격조사는 앞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서 변이형태가 있다. 통시적으로 주격조사의 성립·발전·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어와 유구어와 비교하기 위해 다음은 우선 중세 한국어의 예를 보겠다.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조사가 ‘이[i]/ | [i]/Ø’의 변이형태로 실현된다.

- (2) ㄱ. 世尊의 象頭山에 가샤. (釋譜詳節 6:1)
 ㄴ. 變化 | 無窮 ㅎ실씨. (龍飛御天歌 60장)
 ㄷ. 불휘Ø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밀씨. (龍飛御天歌 2장)

(2ㄱ)의 ‘世尊’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주격조사가 ‘이’의 형태로 실현되고 (2ㄴ)의 ‘變化’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주격조사가 ‘ | ’의 형태로 실현되고 (2ㄷ)의 ‘불휘’처럼 모음 /i/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주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는 원래 현재 사용하는 주격조사의 변이형태의 하나인 ‘가[kə]’가 없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5세기의 문헌에서 ‘가’가 나오지

[dʒu], ぢえ[dʒe], ぢょ[dʒo]가 발음이 똑같은데 주로 じゃ[dʒa], じ[dʒi], じゅ[dʒu], じえ[dʒe], じょ[dʒo]를 사용한다.

않고 1572년에까지 ‘가’의 최초의 예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¹⁵⁾.

- (3) 촌 구드릭 자니 비간 세니러셔 즈로 든니니. (송강 정철의 어머니
인 안씨가 쓴 편지)

(3)에서 나온 ‘가’는 現存文獻에서 처음 나온 예이라고 생각된다.

근대 한국어에서 ‘가’의 존재가 확인된다. 17세기의 문헌들에서 ‘가’가 주로 /j/를 가진 이중모음 뒤에 붙은 것이 주목된다.

- (4) 더러운 직간 다 쳐디고 (新傳煮硝方諺解 8)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i]’, ‘가[ka]’ 같은 변이형태로 실현된다.

- (5) ㄱ. 동생의 학교에 다닌다.
 ㄴ. 철수가 온다.

(5ㄱ)의 ‘동생’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이’의 형태로 실현되고 (5ㄴ)의 ‘철수’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가’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일본어에는 원래 주격조사가 없는데 고대, 중세에는 한 문장의 종속절에서만 ‘의[no]’, ‘가[ga]’ 같은 절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나온다.

- (6) ㄱ. 鶴が鳴く葦辺も見えず春の霞に (万葉集 4400) (두루미가 우는
 갈대가 우거진 물가도 보이지 못해 봄 안개에서)
- ㄴ. かはづ鳴く瀬のさやけくあるらむ (万葉集 356) (개구리가 우
 는 얇은 내는 시원하고 맑게 흐르고 있지)
- ㄷ. 楫取らの「北風あし」と言へば、船出ださず. (土佐日記) (벧사공

15)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1990, 164쪽; 이기문, 『국어사개설(新訂版)』, 태학사, 1998, 166쪽.

이 ‘복풍 거칠어’라고 해서 출항하지 않는다.)

ㄴ. かぐや姫〇「なにか難からむ」と言へば (竹取物語) (가구야공주가 ‘무슨 난처한 일이 있어?’라고 말하면)

(6)의 ㄱ, ㄴ에서는 종속절에만 조사 ‘が’, ‘の’가 나타났지만 ㄴ, ㄷ에는 주격조사가 없다.

이 외에 古典 日本語에서 문장 중에 係り助詞(述語의 활용어에 관계를 미치는 말의 조사, 文語의 ‘ぞ・なむ・や・か・こそ’)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문말(文末)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호응 관계; 특히, 문어(文語)에서, 문말의 활용형이 連体形・已然形으로 끝날 때 조사 ‘の’, ‘が’가 나타난다.

중세 이후, ‘の’의 주격을 표현하는 기능이 쇠퇴하고 江戸時代(1603년~1868년)부터 주격조사로는 주로 ‘が’를 사용한다.

현대 일본어에서 주격조사 ‘が’는 다음의 예처럼 사용한다.

(7) ㄱ. 会議が始まった. (회의가 시작했다.)

ㄴ. 琴子のどんなところがすきですか. (코토코의 어떤 점을 좋아합니까?)

(7ㄱ)의 ‘が’와 (7ㄴ)의 ‘が’는 모두 앞의 체언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ㄴ에서 나온 ‘すき’는 형용사이니까 ‘네가 좋아’처럼 주어가 필요하다)

중세 유구어의 주격조사는 ‘が[ga]’, ‘の[no]’이다. 여기의 ‘が’는 문헌에서 ‘か[ka], きや[kija], ぎや[gija]’ 등 모습도 나왔다. ‘きや[kija], ぎや[gija]’의 경우 그 앞의 체언이 모음 ‘i’로 끝나서 ‘きや[kija], ぎや[gija]’는 구개화가 난 결과이다. ‘が’, ‘か’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성음의 표기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고 혼동해서 생긴 것이다.

(8) ㄱ. きこゑが大ききみぎや おれて あすび よわれは (おもろさうし 1)
(聞得大君이 神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神樂을 연주하고 춤을 해 주시면)

ㄴ. くにかさかもちよる (おもろさうし 233) (國笠神女가 반짝이고 아름답다.)

- ㄷ. あかん おゑづきが かいとり (おもろさうし 542) (阿嘉(地名)
의 축복받은 사람이 櫓를 들고)

중세 유구어에는 주격조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 (9) あよ⁰ はゑて あすで (おもろさうし 89) (활기가 있게 神樂을 연주
하고 춤을 추고)

중세 유구어의 또 하나의 주격조사 ‘の’의 용례가 다음과 같다.

- (10) ㄱ. よしのうらの めつらしや (おもろさうし 61) (吉浦(地名)가
아름다운 곳이어)
ㄴ. ちよらのはなの さいわたる (おもろさうし 138) (아름다운 꽃
이 피어난다.)

중세 유구어에서 ‘가’는 주로 대명사, 인명, 친족호칭, 화자와 친한 대상
등 자신과 사이가 가까운 사람·사물을 지칭하는 체언 뒤에 붙고 ‘의’는
객관적인 대상, 존경한 상대자, 자신과 사이가 먼 사람·사물을 지칭하는
체언 뒤에 나타난다.

현대 유구어에서 주격조사 ‘가’는 그대로 쓰고 ‘의’는 ‘ぬ’로 변했다.
이는 아마 유구어가 5모음에서 3모음으로 변하는 과정에 생겼다(모음
/e/ > /i/, /o/ > /u/, 현대 유구어의 三母音: /a/, /i/, /u/).

- (11) ㄱ. なびーが わらゆん. (나비(인명)가 웃는다.)
ㄴ. ふしぬ ちゅらさんやー. (별이 아름답네.)

(11ㄱ)에 나타난 ‘가’는 주로 주어가 사람이거나 대명사일 때 사용하고
(11ㄴ)에서의 ‘ぬ’는 일반적인 명사 뒤에 붙는다.

세 언어의 주격조사의 형태를 통틀어 보면, 현대 한국어의 /i/, /ka/, 현
대 일본어의 /ga/, 현대 유구어의 /ga/, /nu/는 같은 조어(祖語)에서 발전해
온 것이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ka/와 /ga/는 비슷하지만 한국어
의 /ka/는 16세기 말에 새로 나온 것으로 문헌에 나타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古典 일본어에도 주격조사가 없기 때문이다.

기능면에서 보면 한국어의 주격조사는 앞의 체언이 한 문장에서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된 기능 외에 보어임을 나타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12) ㄱ. 성신의 도는 귀에 들며 무슨때 다마 안해 사하는 거시 德行의
되오 밧기 흥흥는 거시 事業의 득익느니 (翻譯小學八, 4)
- ㄴ. 철수가 대학생의 됐다.

(12)처럼 중세 한국어의 예ㄱ에서 ‘德行’은 ‘되오’의 보어이고 ‘事業’은 ‘득익느니’의 보어이다. 여기의 ‘이’는 보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ㄴ에서 주어 ‘철수’ 뒤에 나타나는 ‘대학생’도 ‘됐다’의 보어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어와 유구어의 주격조사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 (13) ㄱ.今はまいて大人になりたるを (更級日記 子忍びの森)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 ㄴ. 医者になる. (의사가 된다.)

고전 일본어에서는 (13ㄱ)처럼 보어 뒤에 ‘が’, ‘の’가 아니라 ‘に’가 붙고 현대 일본어에서는 (13ㄴ)처럼 보어 다음에 ‘が’가 아니라 ‘に’가 사용된다.

- (13') ㄱ. 赤木 赤虫が 蝶⁰ なた 飛ばば (琉歌全集 2240) (赤木 赤虫가 나비가 되어 날면)
- ㄴ. ~うふच्च⁰ なゆん. (어른이 된다.)

중세 유구어에서는 (13'ㄱ)처럼 보어 다음에 ‘가’, ‘의’가 아니라 無助詞 형식으로 표현하고 현대 유구어에서는 (13'ㄴ)처럼 보어 다음에 아무 助詞도 없이 나타난다,

그 외에 현대 한국어의 ‘가’는 일본어와 유구어와 달리 ‘강조’의 뜻을 덧붙태는 보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 (14) 집이 좋지가 않다.

(14)에서의 ‘가’는 ‘강조’의 의미만을 더하는 보조조사로서 쓰였다. 이러한 용법은 세 언어 중에서 한국어의 특유한 것이다.

사실은 ‘の’, ‘が’는 주격조사로 쓰는 일에 비해 古典 日本語에서 ‘の’, ‘が’는 주로 접속조사(관형격조사라고도 말함)로 사용한다.

- (15) ㄱ. 春のかぎりの今日の日_の夕暮れ (伊勢物語 91) (봄이 끝나는 이 날의 황혼이 돼 버렸다.)
 ㄴ. すべて都のうち三分が一に及べりとぞ.(方丈記) (전체에서는, 도(都)의 삼 분의 일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古典 日本語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명사 뒤에 그 명사는 존경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の’를 사용하고 非尊敬의 대상인 경우 ‘が’를 사용한다.

- (16) 聖武天皇の御歌次_の柿本人麿が歌なり. (古来風躰抄) (聖武天皇의御歌, 다음의 柿本人麿의 歌이다.)

(16)에서 ‘柿本人麿’(인명)보다 ‘聖武天皇’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の’는 ‘聖武天皇’ 뒤에 붙고 ‘が’는 ‘柿本人麿’ 뒤에 나타난다.

그런데, 현대 일본어에서 ‘が’는 주격조사로만 사용하고 ‘の’는 주로 접속조사의 기능을 보유했다.

- (17) ㄱ. 會議が始まった. (회의가 시작했다)
 ㄴ. 午後から韓国語の勉強をしないといけない. (오후부터 한국어의 공부를 해야 한다.)

중세 유구어의 ‘が’, ‘の’도 접속조사로 쓸 수 있다.

- (18) ㄱ. おきおふぢか¹⁶⁾みや (おもろさうし 1369) (조상의 정원.)
 ㄴ. まよ なかの いめ (おもろさうし 730) (깊은 밤의 꿈.)

16) 중세 유구어 주요 문헌인 『おもろさうし』에서 ‘が’는 자주 ‘か’로 표기한다.

(18ㄱ)에서는 ‘おきおふぢ’(祖上) 뒤에 ‘か’를 붙이고 (18ㄴ)에서는 ‘まよなか’(深夜) 다음에 ‘の’를 사용한다. 중세 유구어의 ‘が’는 주로 대명사, 임금, 神女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낱말 뒤에 붙고 ‘の’는 地名, 보통명사 등 뒤에 나타난다.

현대 유구어 주격조사 ‘が’, ‘ぬ’는 여전히 접속조사로 쓸 수 있다.

- (19) ㄱ. ~うんじゆが ~おーじ (당신의 부채)
- ㄴ. きーぬ ふぁー (나무의 잎)

(19ㄱ)에서는 ‘~うんじゆ’(당신) 뒤에 ‘が’가 붙고 (19ㄴ)에서는 ‘きー’(나무) 뒤에 ‘ぬ’가 쓰인다. 현대 유구어에서 ‘が’는 주로 사람이나 대명사 뒤에 사용하고 ‘ぬ’는 일반적인 명사 뒤에 붙는다.

앞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유구어의 주격조사를 살펴봤는데 각각의 통시적인 변화도 간단히 언급했다. 세 언어 주격조사의 형태를 보면 한국어는 일본어와 유구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고대 한국어 및 고대 유구어의 자료가 부족해서 두 언어는 처음부터 주격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지 못한다. 기능을 보면 한국어의 주격조사는 보조사로 쓸 수 있고 일본어와 유구어의 주격조사는 모두 접속조사로 쓸 수 있다. 이것도 차이점이다.

그 외에 다 높임법이 발달한 세 언어는 한국어가 다른 두 언어와 같지 않아, ‘께서’처럼 선행 요소로 높임말에 해당하는 명사와 대명사에만 결합되는 주격조사도 따로 존재한다.

- (20)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유구어 주격조사도 다른 두 언어와 큰 차이가 있는 점이 찾을 수 있다.

- (21) ㄱ. 나도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 ㄱ’. *내가도 못하지만 네가는 할 수 있어.
- ㄴ. 私もできないが、おまえはできる。
- ㄴ’. *私がもできないが、おまえがはできる。
- ㄷ. わーがん ならんしが, ~やーがー ないさ。

(21)에서 ㄱ, ㄴ'은 잘못된 표현인데 한국어 및 일본어에서 주격조사 뒤에 보조사가 붙을 수 없다. 하지만 ㄷ은 정확한 표현이다. 유구어에서 (21ㄷ)처럼 주격조사 뒤에 보조사도 나타날 수 있다¹⁷⁾.

IV.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의 목적격조사

알타이 제어에는 보편적으로 목적격조사가 존재한다. 만주어의 'be', 몽골어의 'i', 위구르어의 'ni', 터키어의 'i'¹⁸⁾ 등 다 목적격조사이다. 발음을 보면 앞의 대표적인 알타이 제어의 목적격조사의 모음은 유사성이 있는데 모두 다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나타낼 때 알타이 제어에서 목적격조사 없이 표현하면 더 자연스럽다¹⁹⁾. 한국어, 일본어, 유구어의 목적격조사는 알타이 제어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

중세 한국어의 목적격조사는 앞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서 '를', '를', '을', '을', '르'의 변이형태로 실현된다.

- (22) ㄱ. 太子를 하닐히 곶히샤 (용비어천가 8장)
 ㄴ. 長壽를 求ᄃ면 長壽를 得ᄃ고 (석보상절 9:23)
 ㄷ. 公州 | 江南을 저ᄃ샤 (용비어천가 15)
 ㄹ. 帝業을 여르시니 (용비어천가 3)
 ㅁ. 智慧르 여러 비샤 (法華經諺解三 8)

목적격조사는 (22ㄱ)의 '太子'처럼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를'로 실현되며, (22ㄴ)의 '長壽'처럼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17) が<가(한국어의 '이/가'에 해당함)+ ㄴ('도'에 해당함), が-<가('이/가'에 해당함)+ㅅ('은/는'에 해당함)

18) 터키어에서 모음조화의 작용을 받아서 목적격조사는 'i', 'ü', 'ı', 'u' 같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19) 강신,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비교연구』, 한국문화사, 2006, 32-38쪽; 力提甫·托呼提, 『現代維吾爾語參考語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263-264쪽; 이용성, 『샤크르 샤크르 터키어』, 한국학술정보, 2012, 175-176쪽.

서는 ‘를’을 쓴다. 그리고 (22ㄷ)의 ‘江南’처럼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이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을’을 사용하고 (22ㄹ)의 ‘帝業’처럼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이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을’로 나타난다. (22ㄱ)의 ‘智慧’처럼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를’, ‘를’ 대신에 준말인 ‘ㄹ’로 실현되기도 한다.

현대 한국어의 목적격조사는 ‘을[ul]’, ‘를[rul]’만으로 실현된다²⁰⁾.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을’을 사용하고 모음 뒤에는 ‘를’을 붙인다.

- (23) ㄱ. 가족을 사랑한다.
 ㄴ. 소주를 마신다.

한편, 일본어의 경우 원래 목적격조가 없다. 현대 일본어의 목적격조사 ‘を[oi]’는 간투조사(間投助詞)²¹⁾ ‘を’로부터 격조사화한 것인데 奈良時代(710년~794년)부터 목적격조사로 사용한다.

- (24) ㄱ. 野山にまじりて竹を取りつつ (竹取物語 かぐや姫の生ひ立ち)
 (산에 들어가고 대나무를 채취해서는)
 ㄴ. ご飯を食べる. (밥을 먹는다.)

(24 ㄱ)의 예문은 平安時代(794년~1192년)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에서 나온 것인데 ‘を’는 ‘竹’의 다음에 붙어서 목적격조사로 쓰인다. (24 ㄴ)은 현대 일본어의 문장이고 고전 일본어의 용법과 똑같다.

중세 유구어에서 목적격은 보통 조사 없이 표현한데 어느 경우에 목적격조사 ‘よ[jo]’도 사용한다.

- (25) ㄱ. ましらはに こかね くら~~ら~~ かけて (おもろさうし) (白馬에 黄金鞍을 놓는다.)
 ㄴ. 大かたなよ かけさし しようちへ (おもろさうし 986) (大刀를 차 주시어)

20) 口語에서 “뭘 해?”처럼 준말인 ‘ㄹ’도 사용한다.

21) 문절(文節)의 단락에 삽입하여 어세(語勢)를 강하게 하고 어조를 고르며 여운을 곁들이는 조사 (‘よ・や・を・し・ろ・な・ね’ 따위)

(25ㄱ)의 목적어 ‘こかね くら’(黄金鞍)는 조사 없이 실현되고 (25ㄴ)의 목적어 ‘大かたな’(大刀)에는 목적격조사 ‘よ’를 붙여서 표현한다.

현대 유구어 首里말에는 목적격조사가 없다. 다만, 유구어의 남쪽 방언에는 ‘ $\text{y}\text{[j]u}$ ’(현대 유구어 三母音原則: /o/>/u/), ‘わ’, ‘ぼ’ 같은 목적격조사가 존재한다.

(26) 宮古方言:

に y ふにんかい ち y む. (연꽃을 배에 쌓는다.)

(26)는 방언의 예인데 ‘に y ’(연꽃) 뒤에 ‘ y ’를 붙여서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여기의 ‘ y ’는 중세 유구어의 목적격조사 ‘よ’의 변형이다.

이상을 보면 한국어, 일본어, 유구어 세 언어의 목적격조사는 형태상으로 알타이 제어와 비슷하지 않은 데다가 서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세 언어의 목적격조사는 동일한 祖語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없다.

다음은 기능면에서 세 언어의 목적격조사를 살펴보겠다.

(27) ㄱ. 世子를 하늘히 굴히샤. (용비어천가 8장)

ㄴ. 뜻가비를 제 몸이 드외니. (월인천강지곡 상59)

ㄷ. 아버를 주어지이다. (三綱行實圖 孝30)

한국어의 목적격조사의 주된 기능은 한 문장에서 어떤 체언이 타동사의 목적어임을 명시하여 주는 일이지만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의 의미를 가진다. (27ㄱ)에서의 중세 한국어 목적격조사 ‘를’은 동작이 직접 미치는 대상을 표현하고, (27ㄴ)의 ‘를’은 어떤 자료나 수단이 되는 사물을 나타내며, (27ㄷ)의 ‘를’은 행동의 간접적인 목적물이나 대상을 표현한다. 이러한 기능은 현대 한국어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28) ㄱ. 어제는 하루 종일 학교를 돌아다녔다.

ㄴ. 학교를 간다.

ㄷ. 여행을 간다.

ㄹ. 고향을 떠난다.

ㅁ. 이 일을 시작으로 하자.

비. 매일 8시간을 잔다.

현대 한국어에서 목적격조사 ‘을’, ‘를’은 (28)와 같은 용법도 있다. (28ㄱ)의 ‘를’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고, (28ㄴ)의 ‘를’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곳을 표현하고, (28ㄷ)의 ‘을’은 행동의 목적이 되는 일을 나타내며, (28ㄹ)의 ‘을’은 행동의 출발점을 드러내고, (28ㅁ)의 ‘을’은 행동이 비롯되는 곳을 표현하고, (28ㅂ)의 ‘을’은 동작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일본어의 경우, 목적격조사 ‘を’는 (24)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음의 용례도 있다.

- (29) ㄱ. あまたの御方々を過ぎさせたまひつつ (源氏物語 桐壺) (많은 후궁이나 여관의 방(앞)을 몇 번도 지나가게 되어)
- ㄴ. あかず惜しと思はば千年(ちとせ)を過ぐすとも,一夜(ひとよ)の夢の心地こそせめ (徒然草 七) ((언제까지 살아도)흠족하지 않고(죽는 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천년을 보냈다고 해도 단 하룻밤의 꿈처럼 짧은 생각이 들 것이다.)

古典日本語의 예로서 (29ㄱ)의 ‘を’는 경과하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다리를 건너다’라는 문장에서의 ‘를’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29ㄴ)의 ‘を’는 경과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1년을 지냈다’의 ‘을’과 비슷하다.

- (30) 故郷を離れる. (고향을 떠난다.)

(30)의 문장은 현대 일본어의 예이다. 여기의 ‘を’는 행동의 출발점을 나타내는데 ‘고향을 떠난다.’의 ‘을’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현대 일본어의 ‘を’는 奈良時代 이후의 고전 일본어의 용법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인데 앞의 고전에서 나온 용법은 현대 일본어에도 존재한다.

한국어 ‘을’, ‘를’의 다음과 같은 용법은 일본어의 ‘を’가 가지지 않는다.

- (31) ㄱ. 외국을 간다.
ㄴ. 外国に行く。

- ㄴ. 등산을 가다.
 ㄴ'. 登山に行く。

(31ㄱ)의 ‘을’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는 곳을 나타내고 (31ㄴ)의 ‘을’은 행동의 목적이 되는 일을 나타낸다. 일본어에서 이런 경우는 ‘을’이 아니라 ‘に’를 사용한다.

유구어의 경우, 중세 유구어에서 목적격조사는 (25)와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와 비슷해서 (32)처럼 경과 시간도 나타낼 수 있다.

- (32) いくとしよ へても (琉歌全集 古142) (몇 년을 지내도)

현존하는 문헌을 보면 중세 유구어의 목적격조사 ‘よ’는 상술한 2가지의 용법밖에 없다.

이제 와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현대 유구어에서 남쪽 방언을 제외하고 목적격조사가 이미 없어졌다. 이것은 현대 유구어와 한국어 및 일본어 간의 차이점이다.

한국어의 ‘을’, ‘를’은 받침 있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용할 수 있다.

- (33)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맘껏을 마셔라.

여기의 ‘을’은 부사 ‘맘껏’ 뒤에 붙어서 강조의 뜻을 보탠다. 일본어, 유구어에서 이러한 용법이 나타나지 않다.

한편, 일본어의 ‘을’는 감동·영탄을 나타내는 소위 ‘간투조사(間投助詞)’로 文末에도 쓰인다.

- (34) 然ばかり薄き情にはあらざるを (그토록 박정하지는 않은 것이여)

강조의 뜻을 나타난 ‘간투조사(間投助詞)’로 文中에도 쓰인다.

(35) とくかしこへをまるれ (어서 저리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체언 + ‘を’ + 형용사의 어간 + ‘み’”의 꼴로 원이·이유를 나타낸다.

(36) 山を繁み取りても見ず (산이 (나무가) 무성하므로 보지도 않고)

상술한 내용처럼 한국어, 일본어, 유구어의 목적격조사는 중세부터 발음은 큰 차이가 있으며 語源상 보면 일본어의 목적격조사는 ‘간투조사(間投助詞)’에서 나오고 유구어의 목적격조사도 유구어의 ‘간투조사(間投助詞)’에서 나온다는 학설²²⁾은 존재해서 세 언어의 목적격조사는 공통 조어가 존재하는 가능성이 없다. 목적격조사의 기능을 보면 세 언어의 공통점이 많고 문장 구조면에서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유구어의 목적격조사는 이미 없어지는 것이 다른 두 언어와의 차이점이다.

V. 결론

韓國語는 문법구조에서 알타이 제어보다 日本語, 琉球語와 더 비슷하다. 다음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7) 집+입니다.

いえ+です.

やー+やいびーん.

(37') 집+이다.

いえ+だ.

やー+やん.

22) 沖繩古語大辭典編輯委員會, 『沖繩古語大辭典』, 角川書店, 1995, 704쪽 참조.

(37)의 문장들은 높임말이고 (37')의 문장들은 비높임말이다. 한국어와 이러한 의향법에서의 일치는 알타이 제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는 각각 알타이 계통에 속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아직 정확한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세 언어는 확실히 같은 조어가 가지고 있는 親族言語일까? 대답하려면 세 언어 간의 비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법 체계는 한 언어의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니까 세 언어의 문법요소의 비교연구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우선 격조사, 특히 문장의 중심부인 주어와 목적어의 격조사를 살펴봤다. 비교한 결과는 韓國語, 日本語, 琉球語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공통 조어를 가지고 있는 양상을 구비하지 않는다.

한편, 세 언어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기능면에서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다른 조사로 나타나는 경우 세 언어는 각각 특점이 있다. 한국어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다 보조사로 쓸 수 있으며, 일본어의 경우는 주격조사가 접속조사로 사용할 수 있고 목적격조사는 간투조사로 쓸 수 있으며, 유구어의 경우는 주격조사가 일본어의 것과 비슷하다. 학자들이 공통 조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구어와 일본어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

■ 참고문헌

- 강신,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비교연구』, 한국문화사, 200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나찬연,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입문편)』, 교학연구사, 2015.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도서출판 박이정, 2014.
-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1990.
- 이기문, 『국어사개설(新訂版)』, 태학사, 1998.
- 이용성, 『샤크르 샤크르 터키어』, 한국학술정보, 2012.
- 한길,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도서출판 역락, 2010.
- Basil Hall Chamberlain, *Essay in Aid of a Grammar and Dictionary of the Luchuan Language*, Hong Kong: Kelly & Walsh, 1895.
- Alexander Vovin, “Northeastern and Central Asia: ‘Altaic’ linguistic history,” *The Global Prehistory of Human Migration*, ed. by Peter Bellwood, Hoboken: Wiley Blackwell, 2014.
- Lars Johanson, “Altaic Languages,” *Concise Encyclopedia of Languages of the World*, ed. by Keith Brown and Sarah Ogilvie, London: Elsevier Science, 2009.
- Stanley Dubinsky, William Davies, “Language Conflict and Language Rights: The Ainu, Ryukyans, and Koreans in Japan,” *Japan Studies Review* 17, 2013.
- 東北師範大學滿語言文化研究中心, 『滿語語法入門』, 未出版, 2010.
- 力提甫·托呼提, 『現代維吾爾語參考語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石崎博志, 『琉球語史研究』, 好文出版, 2015.
- _____, 『しまくとぅばの課外授業—琉球語の歴史を眺める』, ボーダー
インク, 2015.
- 內間直仁, 『琉球方言助詞と表現の研究』, 武蔵野書院, 1994.
- _____, 『沖繩語辭典』, 研究社, 2006.
- 沖繩古語大辭典編輯委員會, 『沖繩古語大辭典』, 角川書店, 1995.

- 沖森卓也, 『日本語の歴史』, ベレ出版, 2010.
- 小田勝, 『古典文法總覽』, 和泉書院, 2015.
- かりまた しげひさ, 「琉球語から琉球方言へ, そして琉球語へ」, 『沖繩文化』
47(2), 2013.
- 金城朝永, 『那覇方言概説』, 三省堂, 1944.
- 國立國語研究所, 『沖繩語辭典』, 財務省印刷局, 2001.
- 中松竹雄, 『沖繩語の文法』, 沖繩言語文化研究所, 1973.
- 西岡敏, 『沖繩語の入門(改訂版)』, 白水社, 2006.
- 服部四郎, 『世界言語概説: 下卷』, 研究社, 1981.
- , 「日本語と琉球語・朝鮮語・アルタイ語との親族關係」, 『民俗
学研究』 13, 1984.
- 半田一郎, 『琉球語辭典』, 大學書林, 1999.
- 船津好明, 『沖繩口さびら—沖繩語を話しましょう』, 琉球新報社, 2010.
- 外間守善, 『沖繩の言葉と歴史』, 中公文庫, 2000.
- 益岡隆志,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1992.
- 村山七郎, 『琉球語の秘密』, 筑摩書房, 1981.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ase Markers in Korean,
Japanese and Ryukyuan Languages:
Focusing on Nominative Case Markers and
Accusative Case Markers

Li, Jia

Compared with other Altaic languages,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are much closer to each other in grammar, and also to Ryukyuan language. According to the literature, Korean people are the first foreigners to record Ryukyuan language in a written form. In the passage “pronunciation interpreting the Ryukyuan Kingdom” from *A Journey to the Eastern Countries* (1512), Korean people perfectly preserved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s of words and sentences in Ryukyuan language in both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which is an extremely valuable material. Unfortunately, the later time period witnessed stagnation after a prominent beginning. In order to clarify the language family to which Korean belongs to,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compare Korean language with Japanese and Ryukyuan languages.

Different from lexis, grammar underwent a slow and gradual process of vari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ree languages can provide strong evidence for defining the language family of Korean. Based on this rationale,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mparison of grammar elements of these three languages, aiming at case markers including the nominative case markers and the accusative case markers, and observes the procedures and functions diachronically. Based on the examples from the medieval data, it is found that the nominative case markers and the accusative case markers of these three languages vary from each other in forms and origins. Although they show some similarities in functions, it can be conjectured that there is no cognate for the three languages in the history.

Key Words : nominative case markers, accusative case markers, Ryukyuan language, procedure, function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